



中, Shandong Chenming 지분매각 백지화 외국 투자자 규제 강화 원인

Shandong Chenming사와 CVC Asia Pacific사의 합자회사 설립계획이 백지화됐다.

Shandong Chenming은 CVC Asia Pacific에게 지분 30%를 매각해 합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과 이사회 구성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에따라 몇몇 언론은 중국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계획실패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두 회사는 지난 5월 50억위안에 이르는 투자의향서에 합의했었다. Shandong Chenming의 최대주주는 Shandong 지방정부로써 Shouguang City national management Bureau를 통해

24.0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편 CVC Asia Pacific과 공동으로 진행하던 연산 70만톤의 펄프 생산설비 신설과 20만ha의 유칼리투스 조림지 조성도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은 펄프공급량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펄프의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조림지 조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Shandong Chenming사는 국영은행으로부터 60억 위안화에 이르는 장기 대출을 받아 조림지 조성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Chenming Zhangjiang을 설립하여 조림지와 펄프 생산을 전담할 예정인데 회사지분의 99%를 Chenming Zhangjiang가 소유하며 나머지 1%는 자회사인 Zhangjiang Forestry Development사가 소유할 예정이다.



日, 제지업계 사활건 M&A 싸움 오지제지 호쿠에쓰제지 통합 제안 원인

일본 제지업계가 사상 초유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난투극에 휘말렸다.

이번 사태는 일본 제지업계 1위인 오지제지가 지난 3일 5위인 호쿠에쓰제지에 대해 경영통합을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호쿠에쓰 측은 곧바로 이를 거부하고 자체적인 매수방어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M&A 공방전으로 전개됐다. 여기에 업계 2위인 니혼제지는 지난 6월 28일부터 호쿠에쓰 주식을 매일 수백만 주씩 사들이기 시작했다. 호쿠에쓰가 오지제지 산하로 편입될 경우 입을 악영향을 염려해서다.

오지제지가 호쿠에쓰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한 최대 이유는 자사의 약점을 보강해줄 무기를 호쿠에쓰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호쿠에쓰는 일본 제지업계에서도 가장 최신 생산설비인 'N9 머신'을 보유하고 있다.

제지업계는 설비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일종의 장치산업인 만큼 노후 설비만을 갖고 있는 오지제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호쿠에쓰와 경영통합을 원했다.

노후 설비만으로는 장기적으로 국제적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그러나 호쿠에쓰를 산하에 편입하려는 오지제지의 당초 목표는 현재로서는 달성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우선 오지제지가 이미 확보한 호쿠에쓰제지

주식 비율은 3.4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호쿠에쓰가 일종의 백기사로 불러들인 미쓰비시상사가 제3자 할당증자를 통해 인수할 지분을 합치면 미쓰비시의 보유지분이 24%로 늘어난다.

여기에 업계 2위인 니혼제지도 호쿠에쓰제지의 10% 가량을 확보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이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도 큰 변수다. 우선 오지제지는 신타은행이나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호쿠에쓰제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니혼마스터 트러스트신타은행(8.45%)이나 니혼트러스트 서비스신타은행(8.36%), 니혼홍아손해보험(3.65%), 미즈호은행(2.86%) 등이 주요 타깃이다.

이와 함께 오지제지는 호쿠에쓰제지 주식을 1000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주식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일본 동종업계 대형 업체간 첫 적대적 M&A라는 점에서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만일 오지제지가 주식 공개매수에 성공해 호쿠에쓰의 대주주가 된다면 일본 제조업계에 비슷한 일이 언제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적대적 M&A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벌써부터 점치는 애널리스트도 나오고 있다.

이번 호쿠에쓰 쟁탈전 결과가 어찌되든 보수적인 일본 제조업체들이 적대적 M&A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재계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오지제지는 올 3월 말 결산 기준으로 매출액이 1조2138억엔, 순이익은 210억엔에 각각 달

하는 일본 최대의 제지업체다. 니혼제지는 같은 기간 매출 1조1521억엔으로 오지제지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M&A 태풍의 핵인 호쿠에쓰제지는 올 3월 말 결산에서 매출 1536억엔과 순이익 32억엔에 그쳤지만 1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이다.

대만, 제지업계 1분기 생산 실적 저조 판지 생산감소 두드러져

대만 제지업계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부진으로 여전히 불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1분기 종이와 판지 생산량은 전년 동기과 비교해 3.9%, 내수와 수출도 2.5% 감소했다. 특히 판지의 생산 감소가 두드러져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대만 판지업체의 버팀목이 됐던 중국시장의 수출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반해, 대만 판지업체들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다.

아트지 생산은 전년대비 14.2% 감소했지만 북미와 일본으로의 수출량 증가로 수출은 6.2% 증가했다. 대만 제지협회에 따르면 대만의 2005년 종이와 판지 생산량은 4백95만4천5백88톤이었으며 1인당 종이소비량은 2백17.59kg이었다.

폐지는 3백42만5천톤을 수집, 69.1%의 재활용률을 기록했으며 65만1천5백24톤을 수입, 2004년에 비해 폐지 수입량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다.

이집트, 종이컵 생산설비 투자 확대 한국산 시장 선점 가능성 있어

이집트의 종이컵 시장은 제품 사이클로 볼 때 시장 형성단계에 속하나 음료수 사용의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개인위생 관리 관심 증가, 정부의 종이 연관 산업 육성 정책을 감안할 때 간편하고 위생적인 종이컵 수요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집트 정부는 연간 1백50만톤에 달하는 종이류 수입이 무역수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이집트 국내 기업의 제조시설 투자를 확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내 종이 생산이 확충되면 종이컵의 생산 및 수요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이집트의 종이컵 생산설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종이컵 생산설비의 조기 진출을 통해 시장 선점 효과 및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연간 음료수 생산량은 전체 식품생산량인 38억달러의 30%로 계속 증가 추세이며 소득 증가에 따라 보다 위생적이고 간편한 일회용 컵을 선호하고 있다.

포장기계 중 식품포장기계 비중 40%이며 매년 7% 정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종이산업의 자국산 생산비중 확대노력에 종이제품 생산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종이컵 생산설비는 제단과 성형이 분리된 형태와 통합된 형태의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집트 내에서 종이컵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곳은 없



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량이 곧 이집트 내 수요량을 의미한다.

공기업은 신제품, 사기업은 중고 제품 위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종이 제단 기계의 경우만 이집트 'Egyptian for Printing'사가 프랑스 'SEN'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80%를 수입, 나머지를 국내산으로 해 조립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STAR"라는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 제단 및 성형 기계의 경우 독일, 한국, 중국 3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품질과 가격을 비교했을 때 독일은 품질, 중국은 가격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관세율은 5%이며 판매세 10%를 추가하면 실제 관세율은 15%이다.

뉴질랜드, 식품포장재 시장 규모 확대 품질, 가격 변화로 시장 개척

뉴질랜드의 식품포장재시장은 전체 시장규모에 비해 큰 편이며, 계속해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수요가 많은만큼 공급도 많아 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이며 새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품질이나 가격 등의 우월한 조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에서는 이 제품군의 생산도 활발한 편이어서 현지생산과 수입의 비율이 약 4:6 정도인 것으로 조사된다. 주로 사용되는 분야는 햄, 소시지 등 육류 가공제품, 치즈 등 유가공 제품, 훈제 연어등 어류 가공제품 등 쓰임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에는 병이나 캔에 저장해 판매하던 제품들도 상품성 등의 이유로 진공포장으로 돌아서는 경

우가 많다.

HS Code 3923.21은 일반적인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을 전부 포함하는 코드로 포장재 전체시장의 수입동향을 나타내며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제품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가 1, 2, 3위를 기록했으며, 이 제품군의 가격 경쟁이 심하며 브랜드 별 품질의 차이가 근소함을 나타낸다.

BFP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식품포장방식중 뉴질랜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 중 하나이며, 점점 그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규모가 큰 실수요자들도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입업체나 생산자가 도매공급업체에 납품하며 도매업체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유통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는 사용되는 포장재의 종류가 많아 일일이 수입자나 생산자를 찾아나서기 보다 정해진 공급선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받길 선호하기 때문이다. 중간 도매업체도 대표적인 몇 업체가 장악하고 있기보다는 여러 개의 작은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다.

뉴질랜드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공급선을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공급선을 바꿀 경우 품질보증이 어려워 고객을 놓치게 될수 있으며, 시장규모가 작아 한번 신용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치즈, 햄 등에 Shrink Warp이라는 제품을 많이 사용했으나 가격이 훨씬 싼 대신 신선도 유지에 약해 점점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 제품은 생산이 되지 않고 있어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틈새시장인 것으로 보인다. 여러 나

라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보이거나 공급처를 밝히지 않는 업체도 있어 모두 조사되지 않았다.

터키, 금형 수요량 25% 생산 정부 금형발달 위해 보조금 지급

금형산업은 자동차, 백색가전, 전기, 전자, 건설산업의 기간이 되는 산업으로 이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동반해서 발달하게 되며, 이들 주요 산업과의 밀접한 연계성 때문에 금형업체들 역시 이들 주요 산업이 위치한 지역에 함께 위치하고 있다.

금형산업에서 가장 주된 분야는 금속이며, 그 다음으로는 플라스틱, 유리, 세라믹 등이 있다.

터키 금형 산업에는 약 5천의 업체가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규모가 큰 업체는 약 50개 정도이다. 그 외 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 기업들이다. 또한 이들 업체들 중 약 50% 이상이 이스탄불 근교(Kocaeli, Bursa 등)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는 금형을 필요로 하는 주된 산업들이 이스탄불 근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터키에서 금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수는 대략 2만명으로 추산되며, 주로 이탈리아 업체인 10개의 외국투자기업이 금형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터키 금형 시장에서 약 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터키 정부는 금형 산업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연간 천억 달러의 보조금과 대출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터키 국내 금형 제조업체들은 큰 규모의 금형을 제조하지 못하고 있다. 터키에서 필요한 대부

분의 기계는 수입되고 있으며, 큰 규모의 금형 제작을 위해서는 큰 규모의 CNC 기계가 필요한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큰 규모의 금형은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터키에서는 최근 컴퓨터를 이용한 CAD/CAM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생산기술이 도입돼 발전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공작기계의 경우, 터키에서 일부 생산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세계 금형산업의 규모는 약 8백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유럽의 주된 공급국가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이다. 하지만 이들 나라의 인건비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 세계시장은 한국과 대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과 동유럽국가들이 금형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터키 역시 일정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터키 금형 산업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협회는 UKUB이며, 협회활동의 주 목표는 터키 국내 생산의 증가에 있다. 동 협회는 포르투갈, 한국 등의 협회와도 협력을 위한 협정을 맺고 있다. 하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터키는 전체 금형 수요량의 25%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75%를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특히, CAD/CAM 소프트웨어와 CNC 기계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아주 높다. 따라서 무역에 있어서는 적자규모가 큰 편이다.

2000년과 2001년 터키의 금융위기가 있기까지 터키 제조업체들은 유럽산 금형을 선호했으나 금융위기 후 가격문제로 한국, 대만산 몰드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